

무더운 여름밤, 근대문화 흔적 남아있는 거리 걷다

지 난해 특색 있는 군산만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광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던 ‘군산야행(夜行)’이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12만여명의 인파속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군산야행(夜行)’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개최한 문화행사로 근대역사문화유산이 밀집된 근대역사박물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경, 야식, 야숙, 야시 등 8가지 테마를 주제로 진행됐다.

야행은 근대문화유산과 어우러진 51가지의 다채로운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재미와 감동의 파노라마를 연출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도시 군산의 진면모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공군 군악대·의장대의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군산의 과거사를 만담과 퓨전음악으로 전하는 테마공연을 비롯해 시립예술단의 일제강점기 우리의 삶을 위로한 노래 등 군산야행 개막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개막식에 이어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시작되는 2km구간에 펼쳐진 군산야행 빛의 거리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50개의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해망굴 복원 전시·체험관, 근대문화유산 스탬프투어, 동국사 산사음악회, 어린이 타투 거리퍼포먼스, 개항118년사 사진전시회, 황실예복 전시회, 문화재 3D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체험 등 역사를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

야로·야사·야화 등 8가지 테마 주제로 진행

해망굴 복원 전시·체험 등 관람객들 근대역사 즐겨

‘동국사’ 등 근대유적지 야간까지 무료로 개방

행사기간 동안 11만9500여명이 다녀가

시에서는 행사기간(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동안 집계된 방문객수는 11만9,500명으로 주간에 다녀가 집계되지 않은 관람 인파까지 합하면 20만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어 단일 문화행사로는 관람객수가 가장 많은 행사로 기록될 것이라 전했다.

한 관람객은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현장에서 느끼고 배우며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맘속에 간직할 수 있어서 뜻 깊었으며, 길목마다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전시·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이 선보여져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봉근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군산야행을 통해 관람객들이 수탈과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문화유산의 정취를 느끼며 미래의 희망을 되새겨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군산야행이 전국 최고의 야간형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장현기자

스타트업 사업화지원 (2차 재공모) 사업 공모

공모기간 : 2017. 8. 1. ~ 2017. 8. 16.

접수기간 : 2017. 8. 7. ~ 2017. 8. 16.

지원대상 : 게임 개발 및 개발예정종인 (예비)창업자 및 콘텐츠를 보유한 초기기업(창업 3년 미만)

지원분야 :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컨설팅), 인턴십 지원

접수방법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전북 글로벌 게임센터 www.jbgame.kr


